

1950년대 해병대 공민교육의 전개과정 분석

정연숙(공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박상옥(공주대학교, 조교수)†

요약

본 연구는 1950년대 해병대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군 공민교육에 대한 연구이며, 공민교육의 교육체계, 교육과정, 교재,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군 공민교육은 정훈을 조직하고 교재를 발간하여 정훈조직망의 체계에 따라 정훈교육과 문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가 정책의 과제였던 비문해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한글교육 후 기술교육과 고등공민교육까지 이어져 제대 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경제활동의 능동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교육망을 구성하여 하위조직부터 상위조직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오늘날까지 회자가 되는 해병대 공동체 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넷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통하여 삶의 내면화 과정을 형성하여 근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고, 외상 후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군이라는 특수사회에서 군인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지만 그 기반에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기관 역할도 담당하여 1950년대 국가 재건과 정체성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주제어: 군 공민교육, 군 문해교육, 문해교육, 정훈교육

I. 서론

1950년대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사회 제반 여건이 황폐화되어 있었지만, 황폐화된 사회를 재건하고 전쟁으로 중단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회교육정책 역시 추진되었다. 당시 사회교육 정책의 중심은 해방 후부터 계속되었던 문맹퇴치 정책이었다(전광수, 2013). 일제식민지 기간 동안 한글을 사용할 수 없었던 탓에, 해방이후의 문맹퇴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 비문해율 보다 작은 수치일 수 있지만, 해방 당시 비문해자 비율은 13세 이상 총인구 중 약 77.8%였고, 정부수립 당시에는 41.3%로 높은 비문해율을 나

* 제1저자: 정연숙(300-740, 대전시 동구 인동 어진마을 아파트 102동 204호, fox0847@daum.net)

† 교신저자: 박상옥(314-701,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sangok92@kongju.ac.kr)

타냈기 때문이다(국방부, 1956: G126). 물론 ‘작대기식투표 일소’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정부에서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문맹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문해교육은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대표적이고 중점적인 정책이었다(전광수, 2013). 비록 5차 문맹퇴치 사업이 종료된 1958년에 문맹률이 4.1%로 급감되었다고 과대 선전하거나(전광수, 2013: 50), 1960년대 이후는 비문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문해교육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았던(양병찬, 2004: 208) 정책적 실수로 이어지긴 했지만, 1950년대 국가의 문해교육 실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해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부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다. 국방부의 정훈조직에 의해서 공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는데, 주로 비문해자인 군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이 실시되었다. 1950년대 비문해 문제는 국방부에 있어서도 시급한 현안이었다. 전쟁 때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비문해 장병들이 대거 입영하게 되고, 이들이 군 훈련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휴전 당시 약 23만명(육·해·공군 포함)이상의 병사들이 비문해자였기 때문에 군 전력 향상을 위해서 문해교육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해군본부정훈공보실, 1999: 133).

문해교육과 더불어 군 공민교육은 정신교육, 민주주의 시민양성, 국가와 경제적 재건의 목적 등도 있었다. 군 사회교육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군 공민교육에 대해서 최석(1957), 최창언(1960), 유충희(1966)는 군인의 자질향상, 민주주의 시민양성 및 정신교육에 따른 군인화 및 정치사회화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교육화랑대연구소(1994)와 박효선(2008)은 군 평생교육을 국가 재건기에 필요한 군인화 및 산업사회 진출을 위한 인력양성의 기제와 군 평생교육의 단초를 제공한 사회교육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1950년대의 군 공민교육은 그 당시 사회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문해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과 혼란기의 국가 정체성 기틀을 형성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회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전국적으로 군복무로 인해 많은 남성 인력이 유출되었고, 제대 군인이 마을에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이만갑, 1973; 김영미, 2009)에 비취볼 때 1950년대 군에서 이루어진 공민교육은 그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군에서 이루어진 공민교육이 우리나라 사회교육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군 본연의 임무를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50년대에 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계획과 교육과정에 의해서 공민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보여준 연구는 많지 않았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나 자료의 정확성 문제 등으로 군 공민교육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연구에서 이를 드러내지 못했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 교육, 특히 공민교육이란 명칭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1950년대 군 공민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육계획, 교육일정과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그 성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시대에 이러한 군 공민교육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군 조직 중에서 창설 초기부터 특히 교육에 중점을 두어 엘리트군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던 해병대(해군본부전사편찬감실, 1954)의 공민교육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군 공민교육에 대한 자료 및 사료가 많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1954년~1965년까지 발행되었던 해군지를 검색하여 군 공민교육에 대한 자료를 일부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그 당시 국방부에서 유공 장교와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대에 표창장을 수여하였는데, 이때 해병대의 부대장 및 정훈장교들이 군 공민교육의 자료를 해군지에 기고하여 중요한 자료가 일부 남아 있어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해병대에서 실시되었던 교육계획과 교육과정, 교육교재 등이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1950년대 군 공민교육의 전개과정과 그 의의를 분석하였다.

II. 1950년대 사회교육 정책

일본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해방 이후부터 전쟁 전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태동하고, 전 국가적인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못하였던 시기였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정부 재건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했지만 오랜 식민지 과정 탓으로 국민 대다수가 한글 문자해독 능력을 상실하여 재건을 위한 동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높은 비문해 인하여 국민의 기초교육이 매우 부족한 시기로서 국가 차원에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일이었다. 또한 높은 비문해율은 국가 재건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때 국가의 재건에는 정치적 및 경제적 재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격랑기를 겪는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교육정책의 목적이었다(오혁진, 허준, 2011: 277).

특히 세계적으로 한반도는 이데올로기적 전장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와 사상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문맹퇴치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했다. 따라서 사회교육 중심의 성인 문해교육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휴전이 성립되고, 남북한의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각하던 당시, 국가의 안정화를 위하여 선거를 통한 새로운 국가 건설 이념 또한 현실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했고,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이해와 국민들의 최소한의 문해 능력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비문해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성인 교육 담당부서의 확대개편과 함께 성인문맹퇴치 운동은 급박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교육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1945년 문교부에 성인교육국이 설치되었고, 1946년 11월에 사단법인 대한성인교육회가 설치되었다. 1950년 4월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인교육회 총본부를 '사단법인 대한성인교육회'로 개편했고, 기존의 각 도 성인교육협회는 사회 또는 사회교육협회를 지부로 편입함과 동시에 성인교육단체로 면모를 갖추었다. 사업목표는 ①문맹퇴치 및 교화사업, ②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설치 운영, ③읍, 면 성인교육지도자 배치, ④정기간행물 출판 등이며,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황종건 외, 1966: 167). 또한 1950년대에는 정신계몽, 직업기술교육, 지역사회개발교육, 국민의식개발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남궁용권, 1998: 337) 산업사회의 진입을 위한 기술교육 중점사업으로써 직업기술 교육에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설치되어 사회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회교육의 중요한 활동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해교육이었다.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되기까지는 문맹퇴치교육활동이 '국문강습소'에서 실시되다가, 6·25때 일시 기능이 중지되었으며, 그 이후 '국문보급반'과 '공민학교 성인반'에 그 기능이 흡수되었다. 먼저 국문보급반은 1953년 설치되었는데, 국문보급반의 설치로 국문강습소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국문보급반은 다시 1954년 문맹퇴치 5개년의 사업에 흡수되었다(김민남 외, 2000: 21-2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에서 1954년부터 1958년까지 5차에 걸쳐 문맹퇴치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은 문교부뿐만 아니라 내무부, 국방부, 농림부, 보건사회부, 공보처 등이 합동사업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70일에서 90일까지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수준은 2학년을 수료한 정도의 국문해득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산력, 기타 기초과목 및 공민지식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것이었다(윤복남, 1990: 119).

이 시기 성인 문해교육은 공민학교 성인반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황종건 외, 1966: 91-92). 공민학교는 문해와 공민, 국사, 생활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공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이희수, 1996: 112-113). 일종의 의무교육제도와 같으며, 학령을 초과한 아동을 수용하여 간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소년과, 성년과, 보수과 등을 두

었다(이종각, 1992: 170). 소년과는 초등정도인 13세 이상, 수업은 2년제 또는 3년제이며, 18세 이상은 성년과로 수업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며, 보습과는 1년제이다(이희수 외, 1994: 78). 공민학교 교육과정은 국어, 국사, 산수, 공민, 위생 등을 가르쳐 민주사회의 공민으로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교수과목 및 과에 따라 시간에 차이가 있다(이희수, 1996: 116). 그런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민학교 성인반에서 공민교육은 주로 문해교육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결국 1950년대는 전쟁 등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의 강력한 시책에 따라 문해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1950년대 국민기초교육, 경제개발 및 국가재건을 위한 기제로 국가가 문해교육 사업을 정책적으로 실시했던 것이다.

Ⅲ. 군 공민교육

해방 후 우리나라는 자주독립 국가로서 안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없이는 존립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는 1946년 1월 20일 긴급 대통령령으로 호국병역에 관한 임시 조치령을 공포하여 호국군을 창설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바로 해체되었고, 청년방위대가 창설되었으나 전쟁이 발발하여 해체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실수로 국방의 체계를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육군본부 정훈감실, 1991: 144).

1948년 정치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으로 교육의 전담부서인 정훈국이 창설되었고, 이 정훈국 기구는 행정실, 지도과, 보도과, 조사과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창설 시기 한국군의 정훈기구는 교육을 전담할 독립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 정부 조직법 개편에 따라 정훈조직도 각 군 본부 정훈감실이 정훈교육대 창설 등으로 조직의 정비가 되면서 정훈조직은 안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3년 안동준 대령이 국방부 정훈부장으로 취임한 후 미군정의 교육체계에 따라 공민교육을 강화하였고, 공민교육이라는 명칭을 군 일반교육으로 개칭하여(국방부, 1956: A95)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군 일반교육이란 현역군인에게 일반 교육제도에 의하여 대학졸업 정도 이하의 과정을 실시하는 비군사적 학술, 실업 및 기술계통의 교육을 뜻한다. 이러한 일반교육 내에서 일반적으로 문해교육과정에서 초급중학교 과정까지를 공민교육이라 하고,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과정을 합하여 고등교육이라고 구분한다(국방부, 1956: A8). 그런데 1950년대에는 군에서도 문교부 전시정책의 연장선상으로 군대 내 비문해자 교육 및 1950년대 국가의 문명퇴치운동 참

역을 위해서 군 일반교육 중에서 군 공민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군 공민교육은 비문해 사병에 대해 식자(識字)를 중점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5단계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었다. 5단계 교육은 성인반(문해)교육, 공민교육(공민반교육, 고등공민교육), 중학교·고등학교(中高)교육, 대학교육(국방부, 1956: A91)으로 각각 구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은 성인과(문해) 과정 5주, 기본과정인 공민과 과정 1~4학년과정, 국민과정인 고등공민과정 5~6학년의 과정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고등교육 및 전문대학까지 자기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국방부, 1956: A95).

성인(문해)교육에 있어서 부대장은 교장이 되고, 정훈관(정훈장교)은 교무주임장교가 된다. 교관은 초등학교 교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장교 또는 3급 이상 군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교장(부대장)이 임명하였다(해병대정훈감실, 1954: 237). 그 당시 실업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군 공민교육은 제대 후 학교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와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었다. 군 일반교육과 민간 사회교육 체계 비교는 <표 1>과 같다.

<표 1> 군 일반교육 체계

군 (최초)	성인과 (문맹)	군 공 민 학 교		고등급	대 학 급 (전시연합대 통신식 교육)
		공민과	고등 공민과		
군 (개정후)		초등 공민 교육	고등 공민 교육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
사회 (비교)	문 맹	초등(국민) 학교 : 1~6	중학 : 1~3	고등학교	신제대학 (新制 大學)

* 자료출처 : 건군 50년사, 1998: 146.

IV. 해병대 공민교육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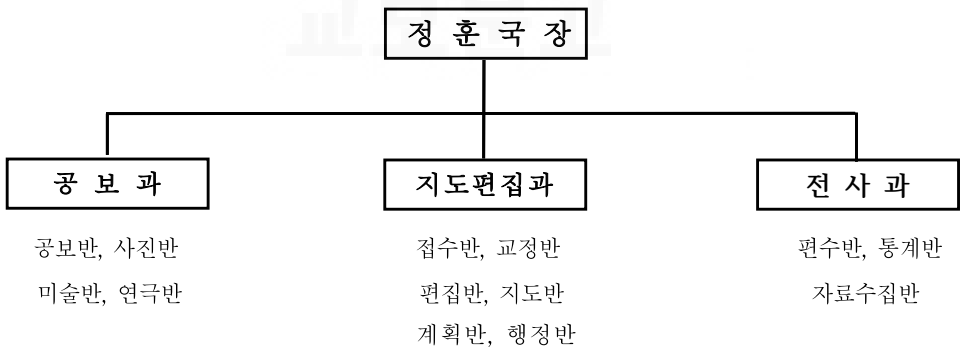
1. 공민교육 체계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해병대 창설은 정부

수립과 더불어 긴급사였다(국방부, 1955: 240). 그리하여 1949년 대통령령 제88조 해병대령(1949. 5. 5. 공포) 제1조에 의거하여 해군에 해병대를 두었다. 특히 해군은 창설기부터 다른 군과 다르게 창설자의 철학에 따라 신사도 정신과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에 중점을 두어 엘리트군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해군본부전사편찬감실, 1954: 18-22).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엘리트군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바탕인 문해교육이 전제되어야만 하였다. 따라서 해병대에서는 교육체계를 재조직하여 교육을 위하여 그 어느 군보다도 혼신의 노력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부대라는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였다. 초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창설기에는 무학자나 비문해자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국가가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서부터 육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청년들은 모두 징집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비문해 장병들이 입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나온 것이 전쟁 중에 입영한 비문해자 교육이었다.

결국 해병대는 조직을 재정비하여 사령부 정훈처를 정훈감실로 승격하여 교육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각 부대의 상황에 따라 실시했던 교육을 일원화하였다. 특히 전쟁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인 교육단에 소속되어 있는 각 학교나 훈련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교육체계를 재조직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3년도 해병대 정훈감실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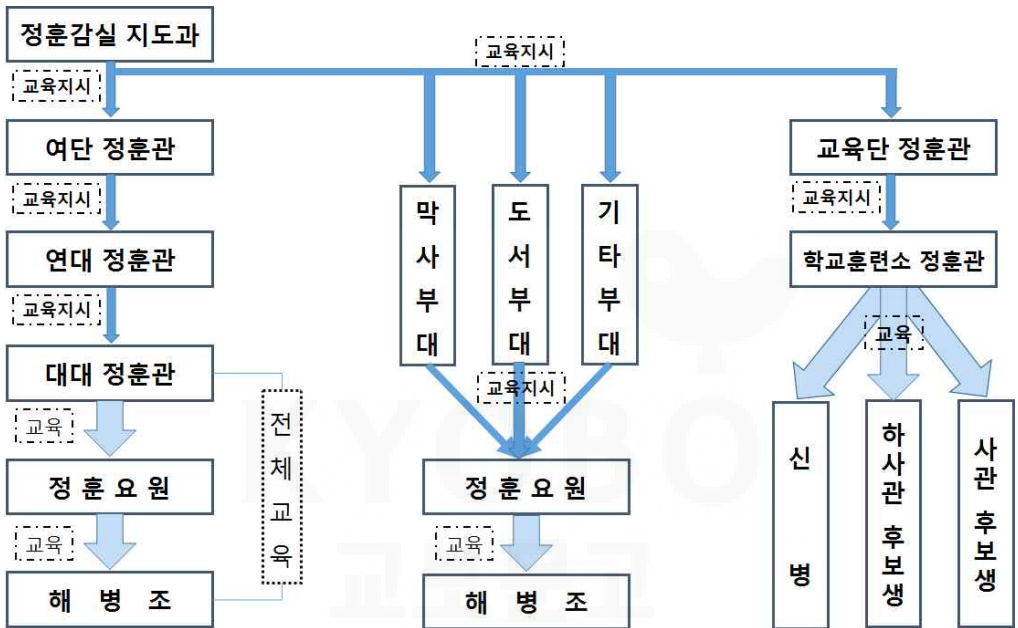


[그림 1] 해병대 정훈감실 구조(1953.11.1.)

* 자료출처 : 정훈교본, 1953: 56.

가. 정훈 조직망을 이용한 교육체계 구성

1953년 휴전 후 군인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사상과 정신적인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여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장병들에게 국민을 보호하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령부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훈 조직망을 구성하게 되었다. 정훈 조직망에 의한 교육체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해병대 조직망에 의한 교육체계

* 자료출처 : 국방과 당면과제, 1955: 256.

정훈 조직망은 해병대의 편성을 기초로 하여 해병조를 하위조직 단위로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의 순으로 계층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화하였다. 그 조직망은 종적 계통뿐만 아니라 원활하고 통일성 있는 횡적 연락과 협조로서 상호간 균형을 유지하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직망은 기초단위인 해병조(4인조)를 중심으로 전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혼란으로 인한 전력의 소모를 방지하고, 전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투 수행 시 고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병조직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해병대정훈감실, 1953: 59-60). 또한 해병대사령부에서는 정훈 조직망을 이용하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체계에 따라 해병대사령부 정훈감실 지도과에서 교육지시를 하는데, 여단에 소속된 부대, 기타부대 및 도서부대와 교육단으로 교육계획을 지시하면 이 지시에 따라 각 부대는 교육을 실시한다. 여·사단 교육망은 정훈감실 지도과의 교육지시에 따라 교육실적 현황 및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 및 감독한다. 대대 교육망은 전체적인 교육을 전담하는 부대로 연대 교육망의 연락체계에 따라 각 중대간의 교육활동을 조정 및 지도한다. 그리고 중대 및 분대조직망은 교육지시에 따라 정훈관 및 정훈요원이 교육을 직접 실시한다.

기타 조직으로 사령부대대, 학교, 훈련소 막사 및 기타부대가 있으며, 정훈관(소대장)은 정훈 책임요원을 겸임하는 장교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책임을 갖고 있다(해병대정훈감실, 1953: 61-63). 또한 각급 부대의 본부부대, 중대 또는 독립중대원에 대한 교육은 그 부대와 관련된 정훈관이 직접 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훈관이 부족하여 정훈관이 없는 부대는 정훈요원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해병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단은 전문교관인 정훈관(정훈장교)을 배치하여 사관 후보생, 부사관(하사관) 및 신병교육을 직접 담당하였으며, 해병대 대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처럼 정보통신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정훈조직망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계획, 교재 등 교육 시에 필요한 사항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 과정

가. 교육 계획

정훈은 미국의 Information을 의미하며, 정훈교육(Troop Information), 공민교육(Troop Education), 공보(Public Inform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정훈(TI&TE)이라 함은 정훈교육(TI)과 공민교육(TE)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국방부, 1956: A3). 정훈교육은 군 인정신의 함양과 사상 선도를 위한 교육, 공민교육은 일반학술 및 실업교육을 장병들에게 교육하여 일반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민교육은 5단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문해교육은 첫 단계의 교육이다. 1950년대의 중요한 현안인 비문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민교육은 첫 단계인 문해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훈교육은 주1회, 매주 수요일, 2시간 정규교육시간으로 편성하여 교양제고 및 군인정신

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재는 해병독본, 시사교재 및 기타교재를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교육 중 문해교육은 국가시책에 따라 특별교육으로 편성하여 주 3회씩 실시하였다(해병대정훈감실, 1954: 222-229). 따라서 정훈교육은 정규 교육시간으로 편성하여 정신교육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문해교육은 특별교육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전쟁 중 문해교육은 체계적인 교육체계에 따라 실시된 것이 아니라 전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52년 2월 10일 제1차 3군 정훈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문해교육에 대한 중요 사항을 검토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정훈장교를 교훈관으로, 교재교정, 조사, 계획, 지도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해병대는 이 회의에 따라 1952(4285)년 9월 29일 사령부에서 작성한 정훈교육 계획안을 예하부대 정훈관에게 배포하여 통일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 계획안에 따라 정신교육과 시사교육은 정훈교육 계획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문해교육은 한글교육 지도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부대여건과 상황을 따라 실시한 문해교육은 교육담당 부서인 정훈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정훈업무는 지도과, 공보과, 편집과에서 담당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있도록 하였다. 지도과 주요업무는 국민학교 설치운영과 비문해자 완전퇴치에 중점을 두고 교육지도안 작성 및 교육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그리고 공보과는 선전업무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며, 편집과는 교재나 기관지 등을 발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해병대정훈감실, 1954: 252).

그 당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교육은 문해교육이었다. 먼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각 부대에 있는 비문해자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한 후 성인독본(한글독본) 교재를 배포한다. 교육방법은 제1기 기본 퇴치기, 제2기 해득기, 제3기는 완전퇴치 및 활용기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는 토요일에는 반드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이 60점 이하이면 재시험을 실시하였고,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야간학습 및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동문고 운영은 전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병들에게 정신적·정서적인 안정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하여 운영하였으나, 전쟁으로 운영 및 보관 등의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다(해병대정훈감실, 1954: 222-223). 그리고 해병수가 발간은 직접 전투에 참가한 해병대 장병들의 미담을 바탕으로 발간하였는데 이것은 장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투에 대한 지식과 전우애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다. 1953년 정훈업무 계획표는 <표 2>와 같다.

<표 2> 1953(4286)년 정훈업무 계획표

방침	기본실시방법	교육 방법	담당부서	비고
정훈 교육	교재발간	1. 기관지 해병 2. 정훈강좌 제1집~제12집 3. 해병주보발행 4. 사령부 훈련 훈시문집	편집과 지도과 편집과 지도과	
	정훈교육 강좌	1. 사병정훈교육 강좌실시 (사병들의 교육제고 및 군인정신배양)	지도과	
	정훈요원 교육	1. 정훈요원 교육훈련실시 (내부반 교육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케 하고 이에 필요한 실제 훈련 실시)	지도과	
	내무반 교육	1. 각 내무반단위로 정훈요원이 교육지도를 담당함	지도과	
성인 교육	문맹자 퇴치	1. 각 예하부대의 문맹자 실태조사를 실시함 2. 성인독본 교재배포 3. 성인교육방법 - 기간을 년3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1기는 기본퇴치, 제2기는 해득기, 제3기는 완전퇴치활용기로 한다. - 교육 후에는 반듯이 퇴치시험제도 실시한다.	지도과	
대 내 문 예 공 작	이동문고 실시	1. 이동문고 설치 - 신관 2500부, 구관 2500부 : 5000부로 편성하여 각 예하부대 또는 병원선 등을 순회 이동한다. - 이동문고는 10개로 편성함	공보과	
	해병수기 발간	1. 직접전투에 참가한 장병들의 실천미담집 발간 - 년 1회~5000부 : 5인당 1부	공보과	

* 자료출처: 정훈대계 I, 1956: A81-82 재구성

나. 교육내용

해병대 기본정훈업무 방침에 따른 공민교육 목표는 군인의 기본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전 해병의 질적 향상과 신념을 양양시키고 군기를 확립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교육지시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교육체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교육방법은 정훈조직 운영방법을 따랐으며, 전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정훈요원에 대한 예비교육을 실시하였고, 정훈관(교관)은 수시로 순회교육지도를 담당하고, 정기적인 교육

점검을 하였다. 그 당시 교관이 부족하여 교관이 없는 부대는 정훈요원이 교육을 담당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정훈요원에게 교육방법 및 수업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2개월부터는 교육 목표에 따라 해병으로서 의무와 전통을 인식케 하여 민주주의 교양과 지식수준을 향상시켜 본격적으로 군인화를 위한 공민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시사교육 및 정신교육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였지만 공민교육은 주 18시간 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집중적인 노력이 투입된 교육은 공민교육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표 3>의 1953년 정훈교육 교육안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3> 정훈교육 교육안

1월 교육안		2월 교육안
교육 목표	신년을 맞이하여 전 해병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필승의 신념을 양양시키고 군기 확립으로써 강화하여 통일성업의 임무를 완수케 함	전장병으로 하여금 해병으로서 의무와 전통을 바로 인식케 하며 민주주의 교양을 비롯한 제반지식수준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전쟁목적을 지향한 일사불란의 전진을 계획케 함에 있음
교육 요령	정훈조직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교육을 균등하게 실시하여 전체적인 교육성과를 획득하도록 할 것	정훈조직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전체적인 교육성과를 획득하도록 할 것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훈조직 운영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 -전체교육에 앞서서 정훈요원 예비교육을 실시할 것 -정훈관은 수시로 순회교육지도를 담당하고 감독할 것 -정기적인 교육점검 계획표를 작성하여 주 1회 교육의 침투여부를 점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훈조직 운영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 -전체교육에 앞서 정훈요원 예비교육을 실시할 것 -정훈관은 직접교육을 담당할 것이며 또한 수시로 각급 조직단위를 순회하여 예정에 의한 교육지도를 담당할 것 -정기적인 교육점검 계획표를 작성하여 주 1회 교육의 침투여부를 점검할 것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무학자 교육 : 한글독본 -일반사병 교육 : 해병독본 -사관후보생 교육 : 정훈독본 이상기본교재와 보조교재를 겸용함. -이상교재는 사령부에서 담당한다. 	-1월 교육안과 같다

교육 후 조치 사항	-이미 배부된 재보고 양식에 의거 교육성과를 보고할 것 -예하교육 점검 결과를 통계로서 명시하여 강평으로 시달할 것	-월말 정훈업무보고서 중 제3호 및 제4 호 양식에 따라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작성 제출할 것 -부대지휘관은 월말마다 예하 정훈교육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명시하여 강평을 시달할 것
교육 요강	별지 1월분 정훈교육 진도표에 의거교육을 실시할 것	별지 2월분 정훈교육 및 한글교육 지도예정표에 의거 교육을 실시할 것

* 자료출처: 해병대 정훈소사, 1954: 238-242.

공민교육 중 문해교육은 첫 단계 과정인 한글교육으로, 교육진행은 한글교육 진도표에 따라 진행하였다. 교육목표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해로 수업시간표에 따라 매주 12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다. 교재는 한글독본, 부교재는 해병독본이며, 교육방법은 강의식(주입식)으로 이루어졌다.

공민학교 성인교육반(문해) 교육기간은 3개월이며, 매월 2월에 시작하여 4월에 수료한다. 한글교육이 끝나면 제2기 교육을 시작하는데, 제2기 교육은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으로 주 18시간이고, 제3기 교육은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으로 주 8시간이상이며 10월에 수료한다. 그리고 제4기 교육은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으로 주 18시간 이상이며 12월에 수료한다. 제4기 교육이 끝나면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한다(국방부, 1956: A88-90).

교육과정이 끝나는 12월에는 공민학교 수료 예정자들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진다. 문교부 정책에 따라 초등교육을 수료하였지만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장병들이 제대 후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이 정책적으로 연계하지 못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53년 한글교육 진도표는 <표 4>와 같다.

<표 4> 한글교육 진도표

교육과목	내 용	시 간	실시주간	비 고
한글의 자모	닿소리 14자	30분	제1주	한글독본의거 주 3회 실시
	홀소리 10자	20분		
	자모의 이름	50분		
	거듭닿소리 5자			
	거듭 홀소리 11자	50분		

제1과	P14 ~ 16	50분	제2주
제2과	P17	30분	
제3과	P18 P19 ~ 21	20분 50분	
제4과	P22 ~ 23	20분	제3주
제5과	P24	30분	
제6과	P25 P26 ~ 28	30분 50분	
제7과	P29 ~ 31	50분	제4주
제8과	P32 ~ 34	50분	
제9과	P35 ~ 37	50분	

* 자료출처: 해병대 정훈소사, 1954: 238-242.

3. 교육 방법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방법을 살펴보았다. 문해교육 목표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해로 군인화 과정에 따라 실시하였고, 수업진행 방법은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였다. 문해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주 3회 수업을 실시하였다. 첫 주는 기초교육인 철자법 수업으로 150분간 수업을 한다. 제2주의 수업은 1과에서 3과까지 범위로 자음과 모음으로 간단한 단어를 만드는 방법과 단어는 그림과 함께 제시하여 암기가 쉽도록 되어 있다. 제3주째 수업은 4과에서 6과까지이며 제4주째는 9과까지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4주간의 수업이 끝나면 간단한 단어나 문장정도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된다.

2개월 동안의 한글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주 4회 과정으로 수업시간은 200분간 실시하며 기본과정에 중점에 두고 있으며, 1개월 과정을 다시 복습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군 복무 시 복습할 시간이 없는 군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으로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3개월째 교육은 주 8회로 160시간 수업을 진행하며, 제9과 내용부터는 군에 관련된 용어로 단어나 내용을 암기하기 쉽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36과부터는 부모님과 본인 이름쓰기부터 시작하여 그림을 보고 사물이름 쓰기, 예시된 낱말을 보고 짧은 글 짓기 등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3개월 문해교육 과정이 끝나면 부모님께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된다.

매 과정이 끝나면 평가를 실시한다. 첫 평가는 제2주 토요일에 실시하였는데 평균 성적이

약 45점으로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3주부터는 성적이 많이 향상되어 80점 이상이 44%, 평균점수가 약 52점으로 제2주보다는 평균이 7점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4주 후 평가결과는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으로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제4주 후부터는 우수한 사람과 미 해독자 성적이 점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5주차 평가에서는 40점 이하는 16%, 100점은 약 8%였고, 대부분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와 같이 제5주차부터는 한글 해독자와 미 해독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한글 해독자들에게는 셈본과 일반상식 등의 교육과목을 추가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미 해독자들은 나머지 수업 및 복습을 실시하여 수업과정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문해교육 방법과 유의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4> 문해교육 방법 및 유의사항

<p>교육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이하게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완전 해독을 기함 - 교육진도의 정확성을 기함 - 과목마다 복습을 실시함 - 종합정리를 위하여 시험을 시행함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사람이 완전히 국문을 해독할 때까지 교육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중단할 경우라도 처음 과정부터 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 일시에 대량으로 교육하지 말 것 - 국문교육에 따라 일반상식, 시사해설, 사상교육도 해독시키도록 노력한다. - 교육자는 인내성과 지구력이 필요하다. -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비문해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나 사회에서 이미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를 혼합하면 자연 교육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자료출처: 정훈교본, 1953: 78-79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문해교육은 완전한 국문 해독과 함께 일반상식, 시사해설, 사상교육까지 해독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미 해독자를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면서까지 문해교육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해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전쟁으로 사실상 교육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자격을 갖춘 교관도 부족하였고, 부대상황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교육성과를 사령부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대별 경쟁으로 비문해가 아닌 사람도 교육생으로 입학시켜 성과

를 올린 것으로 보아 성과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문해교육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4. 교육 교재

교육교재는 기본교재와 보충교재(간행물, 단행본)로 되어 있다. 기본교재는 한글독본, 정훈교본, 해병독본, 썸본교과서이며, 보충교재는 간행물과 단행본이 있다. 단행본은 장병문예집 등이 있으며, 기관지에는 해군지, 사진화보, 주보 및 순보(旬報)로는 해병주보, 해병만화가 있다(국방부, 1956: A 90).

공민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사령부에서는 교재의 단일화와 교육 통일성을 위하여 기본교재를 작성하여 발행하였다. 문해교육 교재로는 1953년에 발행한 해병교재 제40호 한글독본과 1권에서 6권까지 월정교과서에 따라 편집 발행된 해병대 공민독본¹⁾을 사용하였다(문도빈, 1954: 30). 문해교육은 주로 기본교재를 활용하였으며, 이 기본교재는 1960년대까지 활용되었다(해군본부정훈감실, 1999: 148).

따라서 1950년대 문해교육 정책에 따라 실시했던 국민기초교육의 교재로는 한글독본이 사용되었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사교재로는 해병독본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군교육의 특징인 정신교육교재는 정훈교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한글독본(해병교육교재 제40호)

한글독본은 비문해사병 교육용으로, 성인교육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교육기간 또는 복무 중 교육한 것으로써, 주로 한글의 기초적 지식과 철자법을 습득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군사교육 기간 내에도 훈련교재에 대한 보조교재, 즉 복습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편집되어 있고, 입대 후 영내생활, 군사훈련 등 교육과정별 진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한글독본은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1과에서 45과까지 한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내용은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림, 속담, 시조, 애국가, 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무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어, 훈련, 총검술 등 군대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암기도 쉽고, 군 훈련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책은 전체 150쪽이고, 저자는 해병대 사령부 정훈감실, 발행처는 해병대사령부 작전교육국이다.

1953년 해병대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한글독본(1953년)의 서문에는 국군의 맹세와 철자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자법은 당소리 14자와 홀소리 10자, 자모의 이름, 거듭당소리 5자, 그

1) 공민독본이 발행 되었지만 찾을 수 없어서 교재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리고 거둬들여 11자로 되어 있으며, 1과에서 45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45과의 내용은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와 “해병대는 이렇게 싸웠다”의 내용으로 해병대의 전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당시 한글교본은 육군에서도 교재로 사용하였는데 초기에는 문교부에서 발행한 한글교본을 협조 받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였다(박효선, 2008: 72). 그 이후 육본에서 한글교재를 발행하여 배포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재가 부족하여 복사한 무진(武震)한글교본²⁾을 프린트하여 자습 및 교육교재로도 사용하였다(국방부, 1956: A61).

한글교본은 사회에서도 다양한 교재가 발행되어 사용되었으며, 사회에서 이용된 교재의 개발은 모두 문교부가 맡았던 것으로(허재영, 2004: 594) 사료된다. 그러나 군에서 문해교육 교재로 사용한 한글독본의 저자인 김형식 선생은 한글교본 편찬 및 발행목적으로 “군 한글교본은 한글을 가르치는 데에만 유의하여 편찬한 것이 아니라 한글교본 내용을 정훈교재로 하여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국방부, 1956: B335).

따라서 한글교본은 육군본부와 해병대에서 자체 발행하여 교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본에서 발행했던 교재는 찾을 수 없어 교재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해병대에서 발행한 한글교재는 현재 보관되어 있어 그 당시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3년 해병대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한글독본”과 1953년 일반사회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한글독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차이가 있었다. 사회에서 사용했던 교재의 내용은 주로 사회에서 필요한 생활용어, 문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군에서 사용했던 한글교본 교재는 군대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사용한 교재와 일반사회에서 발행된 교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군 교재는 문교부에서 발행했던 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군 특수성에 맞게 자체 발행하여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 해병독본(해병교육참고 제11호)

해병독본은 해병대원이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하는 필수교재로 국민적 교양과 사상교육 교재를 수집 발행한 것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사교육 교재이다. 이 교재는 제2집으로 1과에서 10과와 부록으로 총 25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은 인문교양, 급변하는 국내외정세 등 주로 일반교양을 포함하는 교재이며, 보조교재는 해병주보, 라디오, 진중신문 등을 이용하여 해설교재로 활용하여 주 2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책의 서문에는 “본 독본에 의하여 군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자기교양을 향상시킬사”라

2) 현재 육본에서 사용했던 교재는 찾을 수 없어서 자세한 교재 내용은 알 수 없다.

고 되어 있다. 제1과 제목은 우리나라의 정치이며, 헌법전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풍속, 언어 및 민족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에 대한 사랑과 한글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특히 7과에는 “하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국제연합헌장 전문, 세계인권 선언, 유엔 헌장 및 제 2차 대전 회고록 등이 실려 있다. 또한 문해교육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교양, 사상, 사회학, 예절, 종교, 문화, 예술, 스포츠, 시사, 일반상식 등 광범위한 기초적 상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집 해병독본은 군인화를 위한 사상교재가 아니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사교재로 출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7년에 출판된 제3집은 서문에 군인의 길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으며, 내용은 민족열, 국방과 병력, 군인과 병영생활 등으로 군인화의 내용이 실려 있다. 따라서 제1집 교재는 찾을 수 없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점차 안정화가 되면서 제3집부터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내용보다는 군인화를 위한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시사교재보다는 군인화를 위한 교재로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교육 성과

가. 공민교육 이수자

휴전 성립과 함께 문맹퇴치 운동을 중심으로 교육체계가 정립되면서 문맹퇴치를 위하여 각부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비문해자들에게 하루 2시간의 형식적인 교육으로써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령부에서는 문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비문해 사병 전원을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대대 단위로 집중적으로 합숙교육을 실시하여 제2차 문맹퇴치 정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문해교육은 거의 완료하였다.

그 이유는 1955년 국방부에서 일반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 고등공민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960년 이후 육본의 지시에 따라 집체교육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는 군대의 특성상 문해교육은 점차 축소되었고, 정신교육 및 사상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1953년도 총 54,680명이 문해교육을 수료하였는데, 그 중 제1전투단(30,000명)과 제2연대(10,680명)에서 가장 많은 교육생이 수료하였다(해병대정훈감실, 1954: 248). 1954년 전반기는 24주, 528시간 수업하여 890명이 수료하였고, 후반기부터는 수업은 20주로 줄이고 시간은 680시간으로 늘려서 수업을 실시하여 559명이 수료하여 총인원 1,449명이 수료하였다. 그리고 1955년 총 교육대상자는 1,597명으로 수료자는 1,451명이었다(김성팔, 1955: 62-63). 1953에서 1955년까지 문해교육 실시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1953-55년도 문해교육 실시현황

부대	정훈 감실	서울 분실	여단 본부	제1 연대	제2 연대	제3 연대	11 연대	교육 단	포병 부대	서해 부대	계
1953	3,000	1,440	2,400	30,000	10,680	-	-	2,040	-	5,120	54,680
1954	-	-	-	712	207	-	-	272	108	150	1,449
1955	-	-	-	481	361	68	90	-	-	451	1,451
계	3,000	1,440	2,400	31,193	11,248	68	90	2,312	108	5,721	57,580

해병대 문해교육은 휴전이 성립된 1953년에 54,680명으로 가장 많은 교육생이 수료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휴전협정으로 군내의 장병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상태가 심각하여 대부분의 군인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한 가지 예로 교육대대에서 실시하는 사격훈련 중 한 일등해병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또 죽어라 오랑캐놈의 새끼」 하면서 고향을 질렀다고 한다(송기주, 1955: 102). 이와 같이 장병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였고, 1955년 당시의 범죄로 처벌받은 대상이 약 17%였다³⁾(해병대정훈감실, 1958: 130). 이러한 통계로 본다면 장병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해병대사령부에서는 그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훈교육을 통하여 기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상교육, 시청각 교육과 영화를 통한 정서적 교육과 스포츠를 통하여 육체적인 건강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장교들에게는 각 대학교수를 비롯한 사회교육가, 저명인사 등을 초청하여 교양강좌, 학술강좌 등을 개최하여 휴전의 장기화에 따르는 정신적 공황상태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김성팔, 1955: 63-64). 특별히 1953년에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장병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공민교육 이후

해병발 제394호(54.1.1)의 해병대 정훈사업 기본계획서(지시)에 따라 1954년 2월 1일 군내에 공민학교 과정을 대대급 이상 전 부대에 일제히 개설하였고, 군내 비문해자들은 성인반 제1기 교육을 거치면서 80% 이상이 문해교육을 완료하였다.

3) 1955년 사건수리 및 처리통계표 따라 장교 및 신병까지 포함한 총 인원이다.

문해교육을 이수한 사병들은 그들의 희망에 따라 공민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교육은 전역 후 사회에 나가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으로 문해교육 과정을 득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희망에 따라서 실시되었다(양영배, 1972: 79-86). 이 기술교육은 육군보다는 최첨단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술교육은 교육단에서 각 병과에 따라 병과학교가 개설되어 병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개인의 적성 및 희망에 따라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당시 군 기술교육은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군 복무 중 받았던 기술교육은 전역 후 직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한편 초등학교급 군 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의 요구가 부각되기 시작하여 중등학교 정도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고등공민학교가 시급히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해병대는 고등공민학교 설치령을 제정하고 제1차로 연대단위부대에 학교를 설치하였다. 고등공민학교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문법, 공민, 생물이며 일일 8시간, 주당 48시간, 학년 간 5주, 과정 당 15주 교육을 실시하였다(국방부, 1956: A111).

해병대에서는 1955년부터 1959년까지 계속교육과 연계된 고등공민교육을 1차에서 5차까지 실시하였다. 1차 공민졸업자는 1,834명, 2차 초등학교 졸업자는 1,900명, 3차 독학자 및 초등학교 졸업자는 2,100명, 4차 중학1학년 중퇴자는 2,100명, 5차 중학교 2학년 중퇴자는 2,200명을 42개월 동안 총 10,13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국방부, 1955: 260).

한편 1955년 11월 21일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육군 113명, 공군 22명, 해병대 183명이 응시하였다. 검정고시 응시자 총인원 318명 중 합격자는 육군 19명, 공군 1명, 해병대 59명이었다(국방부, 1956: G103). 해병대에서 검정고시 응시자가 가장 많기도 했지만 합격률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의 군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활용에 기반을 둔 기술교육과 고등공민교육까지 실시하여 장병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다. 따라서 해병대 문해교육은 단순히 한글을 깨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공인 주체로 변화될 수 있는 임파워먼트의 과정까지(양병찬, 2004: 221)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1950년 군에서 실시되었던 공민교육의 전개과정을 해병대를 중심으로 공민교육 체계, 교육과정, 교재, 교육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군 공민교육은 약 50여만명(육·해·공군 포함)이상이 교육을 수료하여 국민교육도량의 역할과 일반지식수준을 향상시켰다(해군본부, 1999: 133). 그 교육기반에는 정신교육, 민주주의 시민양성, 국가와 경제적 재건 등의 군인화를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장병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국가재건과 산업사회의 진출을 위한 인력양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개인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하여 사회의 변화를 풀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었다.

물론 군 공민교육은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정치적·사상적 교육을 위한 기본교육 보완으로 실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정책에 따라 초등교육을 수료하였지만 학력 미 인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제대 후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이 정책적으로 연계하지 못하여 그 중요성을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해병대의 공민교육을 통해서 1950년대 군 공민교육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군 공민교육이 그 당시 사회교육의 핵심 과제였던 비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1950년대에 군 공민교육의 중심에 문해교육이 있었던 것이 군 전력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군 경험을 했던 남성들이 비문해를 극복하는 데 공헌할 수 있었다. 교육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문해교육을 주 8시간에서 주 18시간까지 제공함으로써 교육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해교육을 위한 자체 교재를 이용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초적인 문해교육을 이수한 후에 기술교육이나 중등교육 수준인 고등공민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한글을 깨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1950년대 군 공민교육을 통해서 20-30대 남성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경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해병독본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교재를 통해서 군인들은 국내외 정세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식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공민교육에 이어서 실시되었던 기술교육을 통해서 이들은 전역 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당시 군은 사회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배운 기술은 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실제로 1950년대 군에서 교육을 받았던, 즉 군대 경험을 가진 남성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만갑(1973)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만갑(1973)은 1958년도 경기도 광주 지역 6개 마을을 조사한 결과 제대 군인이 조사자의 18.8%인 63명이었는데, 이들이 관공서 출입이나 사회단체에의 참여가 빈번하고, 촌락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다른 청소년들을 규합해 실천에 옮기려 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1950년대 군 공민교육은 20-30대 남성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1950년대 군 공민교육은 이들이 근대적 가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헌법 그리고 민족과 문화 등의 교육내용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가치와 국가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해능력이 중요한 역량이 된다는 것, 정훈 조직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체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여한 경험 자체는 근대적인 가치와 규칙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 군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민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이수자들이었던 것이다(김영미, 2009 : 160). 김영미(2009)가 지적했듯이, 이들은 군 생활을 통해 충성심과 애국심을 내면화한 능동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육성되었고, 수년간의 군대 생활을 통해 자신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규범과 규율을 일상생활에까지 적용시켰으며, 이렇게 내면화한 근대적 가치체계를 근거로 마을과 지역을 변화시켰다.

결국 1950년대 군 공민교육은 그 당시 사회교육의 핵심 과제였던 비문해 퇴치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 후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방과 전쟁 이후에 새롭게 근대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시대적 상황에서 근대적 가치체계를 내면화한 국민을 양성하고 이들이 제대 후에 국가와 사회 변화, 발전에 역할을 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국방부(1956). **정훈대계 I·II**. 서울: 청구출판사.
- 국방부(1998). **건국 50년사**.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부정훈국(1955). **국방의 당면과제**. 서울: 선광사.
- 김민남·조정봉(2000). 해방후 문해교육에 대한 비판적 이해. **중등교육연구**, 45, 17-44.
- 김성팔(1954). “공민교육 담당자의 변” -주로 해병대 제2공민학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공민교육을 중심으로- 해병대정훈감실 **해군지**, 4월호, 31-35.
- 김성팔(1955). “해병대 일반교육의 총결산” -특히 공민교육의 발전상을 중심으로- 해병대정훈감실 **해군지**, 12월호, 60-65.
- 김영미(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서울: 푸른역사.
- 남궁용권(1998). “해방후 한국 사회교육 전개와 그 특징”.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한국교육사학**, 20, 333-343.
- 문도빈(1954). “군내공민교육소고” -해병대 공민교육 중심으로- 해병대정훈감실. **해군지** 6월호, 27-30.
- 박효선(2008). 한국군의 평생교육 변천과정에 관한 평가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병관(1997). 미군정기 교육정책의 결정요인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교육회(1955). **대한교육년감**. 서울: 문림사.
- 송기주(1955). “서부전선” 해병대정훈감실 **해군지**, 1955. 1월호 pp. 98~105.
- 양병찬(2004). 학습권 관점에서 본 성인 문해교육 지원 정책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0(4), 207-228.
- 양영배(1972). 군부내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군종 및 정훈활동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혁진(2010). 사회교육의 일반적 발달단계에 기초한 한국 사회교육사 시대구분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4), 81-105.
- 오혁진·김미향(2010). 한국 사회교육사의 연구동향 및 성과 검토. **평생교육학연구**, 16(4), 191-221.
- 오혁진·허준(2011). 1950년대 ‘전국문맹퇴치교육’의 사회교육사적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7(4), 265-291.
- 유충희(1966). **국정훈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 미간행 연구보고서. 서울: 국방대학교.
- 육군본부정훈감실(1940~1989). **정훈50년사**. 서울: 육군본부 정훈감실.
- 윤복남(1990). 한국 문해교육의 사회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복남(2002). 문해교육의 의의와 문해조사의 문제. **한국교육학연구**, 8(2), 255-274.
- 이만갑(1973). **한국 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종각(1992). 해방후 사회교육정책의 역사적 평가. **한국교육사학**, 14, 169-187.
- 이희수(1996). 미군정기 성인교육의 정치 사회화 기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수·이항재(1994). 미군정기 성인 문맹퇴치 운동의 정치적 동인. **순천향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 55-86.

- 전광수(2013). 한국 사회교육법 성립의 역사적 변천 과정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체호(1956). “진선회상기” 해병대정훈감실 **해군지**. 3월호. 138-140.
- 천성호(2009). **한국야학 운동사**. 서울: 학이시습.
- 최 석(1957). **국방과 교육**. 미간행 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대학교.
- 최운실 · 백은순 · 최돈민(1992). **한국 사회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탐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창언(1960). **국군 일반교육**. 미간행 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대학교.
- 해군본부정훈공보실(1999). **해군정훈 50년사 「반세기를 넘어서」**. 해군본부정훈감실
- 해군본부전사편찬감실(1954). **해군사 1집**. 서울: 해군본부
- 해병대사령부정훈감실(1953). **정훈교본**. 서울: 해병대사령부작전교육국.
- 해병대사령부정훈감실(1953). **한글독본**. 서울: 해병대사령부작전교육국.
- 해병대사령부정훈감실(1953). **해병독본(제2집)**. 서울: 해병대사령부작전교육국.
- 해병대사령부정훈감실(1957). **해병독본(제3집)**. 서울: 해병대사령부작전교육국.
- 해병대정훈감실(1954). 서부해병대 전선 1주기. **해군지**. 특집호. pp.95-101.
- 해병대정훈감실(1954). 해병대 정훈소사. **해군지**. 4월호. pp. 200~259.
- 해병대정훈감실(1958). **해병사 3집**. 서울: 해병대사령부작전교육국.
- 허재영(2004). 근대계몽기 이후 문맹퇴치 및 계몽 운동의 흐름. **국어교육연구** 제13집. 577-605.
- 허준(2008). 학습사회론에 비추어본 문해교육 법제화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4(4). 57-81.
- 허준 · 노일경(2011). 학습자 측면에서 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성과. **평생교육학연구**. 17(3). 25-46.
- 홍일승(1955). 해병대정훈교육의 회원과 전망. **국방의 당면과제**. 국방부정훈국.
- 화랑대연구소(1992). **한국군과 국가발전**. 서울 : 육군사관학교.
- 화랑대연구소(1994). **한국군과 국가발전**. 제1회 화랑대 국제학술심포지움.
- 황종건 외(1966). **한국의 사회교육 : 우리나라 성인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중앙교육연구소. 조사연구 제43집. 서울 : 배영사.

- 논문 접수 2014. 11. 03 / 수정본 접수 12. 08 / 게재 승인 12. 18
- 정연숙 : 한동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음. 주요 관심분야는 군평생교육, 문해교육 등임
- 박상옥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평생교육 전공)학위를 받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성인교육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음. 현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 중이며, 주요관심분야는 학습공동체 및 학습동아리, 활동이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임

ABSTRACT

An Analysis for Development of a Civic Education conducted by the Marine Corps in the 1950's

Jung, Yeonsook(Kongju National University)

Park, Sangok(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research study on military civic education conducted by the Marine Corps during the 1950's. The research focuses on the system, syllabus, textbook and accomplishments of the education program. As the military established its troop information & education branch, it conducted civic education, mainly focusing on troop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This consequentl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radicating illiteracy, which was a national policy at the time. Secondly, literacy education later linked with skill training and higher education, which made a foundation for people to become proactive, economically active participants of society after they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Third, it constructed a network of education system, linking basic organizations to advanced organizations and enabling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for Marines, which laid groundwork for the "marine corps spirit", which continues until today. Fourth, through systematic and planned education, marines developed into a proactive population that can realize modern values. It also helped solve post-traumatic stress. Although the military conducted education to train its servicemen as soldiers, at its core, this education has much more significance. It served as a major educational institution, and played a critical role in rebuilding the nation and establishing national identity in the 1950's.

Key Word: Military Civic Education, Military literacy education, Literacy Education, Troop Information.